

이승환의 음악에서 나타나는 개성에 관한 연구

임해권*, 조태선**

청운대학교 대학원, 청운대학교 실용음악과

A Study of Individuality of Seung_Hwan Lee's Music Represents

Hae-Kwon Lim*, Tae-Seon Cho**

Dept of Music, Chungwoon University

Dept of Applied Music, Chungwoon University**

요약 인터넷이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의 매체가 발달함에 따라 아티스트는 자신의 개성을 확립하기 위해 예전보다 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과거의 아티스트가 가창력이나 무대 매너 등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요소만으로도 충분했다면, 최근에는 음악성, 삶의 철학, 사회 참여 등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된 많은 분야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1990년대 발라드를 대표하는 아티스트중 하나인 이승환을 주목하고자 한다. 그의 음악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록 사운드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악기를 활용, 월드뮤직 사운드, 대규모 합창, 새로운 스타일에 대한 도전, 삶이 담겨있는 가사 등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승환은 싱어 송 라이터로서 수많은 앨범을 자신만의 색으로 채우며 한 시대를 풍미했으며,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 아티스트이다.

주제어 : 이승환, 싱어송라이터, 편곡, 아티스트, 월드뮤직, 퍼포먼스, 컨셉트 앨범

Abstract Summary. With the advent of the internet and the concept of social network service, people of present days are flooded daily with new varieties of the communication channel. One of the most affected group of people may be singing artists. This over-growing number of communication channels pushes singers to put just as many efforts to establish and groom his or her unique identity as an artist. In old 'pre-internet' days, any singing artist's superficial features, like the tone of voice or stage presentation, were the only transcriptive criteria upon which the artist was adjudicated. New developments in technology, however, have set a new paradigm for singing artists of the present day. Respective criteria of today extend beyond the realm of music and comprise musicianship, requiring much scrupulous attention on the various area to propagate and protect one's unique identity as an artist. In light of this phenomenon, this study looks into Mr. Lee, Seung Hwan whom may undoubtedly be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ballad singers of 90's. We can probably see his music in 5 features such as Rock Sound based on using various instruments, World Music Sound, Massive Choir, Challenge for the New Style, Lyrics of Life. As a singer-songwriter, he colored numerous albums and influenced the era, unlike many others. He still works vigorously, worthy of his epithet, a 'present-progressive' artist. The object of this study is how Mr. Lee has been proactively dealing with the phenomenon above.

Key Words : Seung_Hwan Lee, sing a song writer, arrangement, artist, world music, performance, concept album

* A summary of this paper is organized in 2015 Chungwoon University master's thesis.

Received 23 September 2015, Revised 24 October 2015

Accepted 20 November 2015

Corresponding Author: Tae-Seon Cho**(Chungwoon Univ.)

Email: entheos@chungwoon.ac.kr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대중음악 아티스트에게 자기만의 색깔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1945년 광복 이후 미군의 진주와 더불어 일명 ‘구락부’로 불리던 클럽이 생겨났고 이를 통해 서양의 음악들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했다. 6. 25사변과 미군정 시기를 거치며 생겨난 미8군 쇼는 신중현, 김홍탁, 안치행, 윤행기, 현미, 장미화 등 수많은 아티스트를 배출하며 대중음악이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었다. 1970~80년대에는 송창식, 양희은, 김세환 등의 포크 문화와 대학생들의 신선함이 묻든 대학 가요제와 그룹사운드가 있었다. 그리고 1990년이 되면서 신승훈, 변진섭, 이승환 등이 주축을 이룬 발라드 음악이 크게 유행하였다. 댄스와 랩을 구사하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출현, 그리고 한국적인 R&B 소울 등의 음악이 생겨났다[1].

이처럼 대중음악의 형태는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그 와중에도 변함이 없는 것은 아티스트들이 자신만의 색깔을 잘 나타내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기획사에 의해 체계적으로 육성되어 만들어져 나오는 아이들은 ‘ 획일화 ’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제작사들이 아티스트의 개성보다는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요소에 더 중점을 둔 결과이다[2].

현재 대중음악 산업에서 기획사의 체계적인 시스템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거대 자본의 종속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인디 뮤지션조차 이를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승환은 이러한 시스템이 만들어 놓은 길을 벗어나 독자적인 행보를 통해 실력과 개성으로 대중 음악사에 큰 획을 그은 아티스트이다[3].

2. 본론

본 논문에서는 이승환이 발표했던 정규앨범 중 그만의 개성이 잘 나타나있는 <그냥 그런 이야기>, <Warning>, <소통의 오류>, <Fall to fly> 네 곡을 선택하여 리듬, 멜로디, 화성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도록 하겠다.

2.1 그냥 그런 이야기

[Fig. 1] intro 4 bar

트윈 리드 기타를 앞세운 본격적인 록 사운드가 돋보이는 곡이지만 이 곡에서는 건반 또한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Fig. 1] 은 인트로의 네 마디를 나타낸 것이다. synth 2가 주 선율을 담당하는 가운데 synth 1은 16분 음표로 하행하는 선율을 효과음에 가깝게 연주하며 마치 별빛이 쏟아지는 듯한 환상적인 느낌을 연출했다[4].

[Fig. 2] verse 4 bar

[Fig. 2] 는 verse의 네 마디를 나타낸 것이다. verse의 가사에서 어린 마음을 가진 소년의 감성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기타와 베이스, 그리고 드럼을 전형적인 8 beat 록 패턴으로 편곡하여 순진한 마음과는 상반된 남성성이 강조되고 있다[5].

"verse 부분 가사"

두근두근 뛰는 가슴 어쩔줄을 몰라
그대고운 미술보면
웬일인지 그댄 정말 동화속 요정 같아
신비로운 눈을 보면
친구들은 이런 나를 이해하지 못하나봐
하긴 난 그대 이름조차 알지 못하잖아
하지만 그런 이름 따위 모름 어때
이렇게 바라만 봐도 좋아



[Fig. 3] interlude 4 bar

[Fig. 3]은 interlude의 네 마디를 나타낸 것이다. 기타 솔로는 The Eagles의 <Hotel California>와 같이 두 대의 기타가 일정한 음정을 이루며 함께 연주를 펼치고 있고, 이후로 진행되는 부분은 두 대의 기타가 선율을 주고 받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곡의 후반부 역시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마무리 된다. 이처럼 트윈 리드 기타로 구성된 록밴드의 문법을 따르는 편곡은 당시 대중음악계에 신선한 충격을 선사했다[6].



[Fig. 4] The Eagles : <Hotel California> solo 2 bar

[Fig. 4] 는 The Eagles의 <Hotel California>에서 나오는 기타 솔로의 후반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 곡의 기타 솔로는 두 대의 기타가 마치 대화를 하듯, 서로 번갈아 일렉트릭 기타의 주법을 다양하게 보여주며 록 기타의 고전 명곡의 반열에 올랐다. 특히 후반부에 들어서 3도 및 4도의 음정을 유지하며 두 대의 기타가 하모니를 이루는 이 부분은 이 곡의 백미라고 할 수 있다[7].



[Fig. 5] intro 8 bar

2.2 Warning

가볍게 취급되는 사랑에 대한 풍자를 무거운 록 사운드로 표현한 곡이다. 로즈의 리프코로 시작되는 intro 는 컨트리 록과 블루스 록이 혼재되어 있는 서던 록의 풍미를 가득 담고 있다.



[Fig. 6] ending 4 bar

[Fig. 6] 은 ending의 도입부 네 마디를 나타낸 것이다. 기타와 보컬만으로 시작 되는 ending의 네 마디 패턴은 곡의 끝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하나 둘 악기가 쌓여 가며 거대한 사운드로 변하게 된다.



[Fig. 7] ending 4 bar pattern

[Fig. 7] 은 ending의 중반 이후를 나타낸 것이다. 네 마디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며 베이스와 드럼이 같은 리듬을 연주하고 있다. 중반에는 코러스까지 가세하며 표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강한 힘을 실어준다[8].

"chorus 부분 가사"

Hey Hey 뒤로물러 무모한널 구해야해
 Hey Hey 거기멈춰 다시생각해
 Hey Hey 눈이멀고 귀가먹어 어두워진
 Hey Hey 제어불능 결정은 일러

2.3 소통의 오류

[Fig. 8] intro 4 bar

록 사운드와 국악 타악기의 조합을 통해 만들어진 독특한 울림으로 소통이 안되는 시대를 풍자하는 곡이다. [Fig. 8] 은 intro의 네 마디를 나타낸 것인데, 셋잇단 음을 기본으로 하는 서플 리듬은 우리나라의 자진모리 장단과 매우 잘 어울린다. intro 부분은 마치 기타와 팽과리가 대화를 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9,10].

[Fig. 9] chorus 4 bar

[Fig. 9] 는 chorus의 도입부 네 마디를 나타낸 것이다. 처음부터 악센트가 미묘하게 어긋나게 연주한 기타와 팽과리는 chorus 후반부에 들어서 드럼과 함께 유니즌으로 나오며 완벽한 일체감을 이루고 있다. 이후로는 다시 각자의 패턴을 연주 하게 되는데 불통의 시대에 잠시 뜻이 통하는 듯 싶다가 결국 각자의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우리의 현실을 표현하고 있다.

"chorus 부분 가사"

나와는 다른 묘한 이해체계
모두들 사는 곳이 다른 외계
치명적 오류 인생을 망칠지도
나만이 세상 축이 되는 시계
모두를 고립시키려는 흉계
너의 진실 한가운데 날 통과 시켜줘

2.4 Fall to fly

이승환 11집의 타이틀 곡이다. 가사를 살펴보면 현실의 벽에 부딪힌 이들을 위로하는 내용이지만 사실 이 가사는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이다. 작품의 질보다는 상품성이 더 부각되는 지금의 냉정한 현실 속에서 자신의 소신을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각오를 표현한 것이다[11].

"verse 부분 가사"

무겁죠 무겁죠 그대 앞에 놓인 현실이
배운 것과 달리 깨우침과 달리 점점 달리 가죠
알아요 보여요 끝이 없어 주저 앉고픈
일만하는 나와 얻지못한 나의 고단한 지금들을
착한그댄 실패들을 거부할수 있는 힘이 없어요
곱이곱이 시련마다 선택의 지혜가 쌓이죠
fall to fly 날기 위해
내게 날개가 있다는 걸 알기 위해

[Fig. 10] chorus 8 bar

[Fig. 11] chorus 8 bar : chord pattern

[Fig. 10] 의 chorus부분은 추락과 비상의 이미지를 화성 진행으로 표현한 것이다. 2도-5도-1도의 진행을 C key에서 Bb key, 그리고 Ab key로 하행하며 추락 하는 자신의 모습을 나타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원래의 조성인 F key로 돌아가는 데 이것은 현재의 추락이 언젠가 다시 비상할 날을 위한 과정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거대 자본이 만들어낸 시스템과의 싸움은 외롭고 힘들지만 미

래에 대한 희망은 여전 히 잃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후반부에 나오는 콰이어 사운드 또한 압도적인데, 팬들을 비롯하여 자신의 뜻을 지지해주는 수많은 응원군을 나타내는 듯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 이승환의 음악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이승환은 록 사운드를 기반으로 하였으나 드럼, 베이스, 기타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악기를 활용하였다. 특히 리프를 연주하는 기타의 역할을 건반이 대신 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그렇다고 기타를 배제하지 않고 본연의 역할인 베킹을 건반과 함께 연주하거나 클린 톤으로 리듬을 연주하였다. 록 음악에서 기타 고유의 영역에 여러 가지 악기를 배치하여 풍요롭고 듣기 편한 사운드를 만들어 냈다[12].

둘째, 이승환은 월드뮤직 사운드를 지향했는데 오케스트라 및 밴드 편성의 악기 이외에 세계 각국의 전통악기를 사용하거나 민속 음악의 분위기를 연출하여 다양한 감정을 폭넓은 방법으로 표현했다. 이 같은 시도는 <딩크슛>, <사자왕>, <대예언>, <당부>, <달빛소녀>, <소통의 오류>, <남편>등에 잘 나타나 있다.

셋째, 이승환의 1집부터 11집에 이르기까지, 발표하는 앨범마다 반드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대규모 합창이 포함된 곡이다. <사랑의 세상으로>, <붉은낙타>, <가족>, <고함>, <나는>, <위험한 낙원>, <동지>,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 <Pray for me>, <내 생애 최고의 여자>, <Fall to fly>, <내게만 일어나는 일> 등의 곡들은 잔잔한 독백에서 시작하여 악기들이 점층적으로 쌓이고 대규모 합창으로 이어지며 거대한 스케일을 형성하는 패턴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방식이 사용된 곡들의 가사 내용을 살펴보면 이승환 자신의 작은 바람, 순수한 마음을 세상으로 퍼뜨리고 싶어 한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합창을 통한 스케일의 확장은 이 세상을 향한 자신의 외침을 더 넓게 확산시키기 위한 수단임을 알 수 있다[13].

넷째, 새로운 스타일에 도전했다. 매 음반마다 변화를 위한 노력은 꾸준히 이루어졌다. 그 결과 세 앨범을 발표할 때마다 최소 한 곡 정도는 기존에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스타일의 곡을 포함시켰다. 록 스타일의 <남자

는? 여자는?>, 정글 비트의 <딩크슛>, 록과 인더스트리얼 사운드를 기반으로 한 <무너져 버린 믿음 앞에서>, 펑키 디스코의 <악녀탄생>, 스윙재즈가 담겨있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시시함>, 아카펠라와 미디엄템포의 비트를 접목한 <늑대들의 합창>, 하드코어 펑크의 <흡혈귀>, 빅밴드와 로커빌리의 <못말리는 봉팔이>, 일렉트로닉의 <And the future>등 한 자리에 머무르지 않도록 늘 변화를 추구했으며, 11집의 <Life's so ironic>에서는 직접 랩을 구사하기도 했다.

다섯째, 가사에 삶이 담겨있다. 1989년 발표된 변진섭의 <희망사항>을 필두로 90년대 대중음악의 가사는 추상적인 시적 표현에서 구체적인 산문으로 변화했다. 사용된 어휘 또한 직설적으로 변했고 사랑의 감정 이외에 다양한 소재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승환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사랑은 인간이 느끼는 감정에서 매우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노래는 사랑을 말하고 있으며, 이승환 역시 많은 곡에서 사랑의 감정을 표현했다. 그러나 이승환은 이에 그치지 않고 고통, 분노를 비롯한 여러 가지 소재를 통해 우리의 삶을 고스란히 가사에 담아내었다. 이승환 특유의 소년 같은 감성으로 쓰여진 가사는 4집 [Human] 이후로 조금씩 냉소적으로 변해간다. <붉은낙타>, <세상사는 건 만만치 않다>, <물어본다>, <Pray for me>, <개미혁명> 등에서는 해학과 풍자, 독백의 형식으로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로 세상과 소통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볼 수 있다. 가사의 내용처럼 실제로도 사회 부조리에 대한 비판, 자신에게 불리하더라도 소신있는 발언을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14,15].

3. 결론

시대가 변하고 매체가 바뀌면서 좋은 것에 대한 평가 또한 달라지고 있다. 달라지는 기준에 맞추려다 우왕좌왕하며 정체성을 잃어가는 모습도 많이 나타난다.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소신을 가지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이승환의 고집스런 모습이야말로 아티스트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덕목임과 동시에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다. 그의 소신은 음악 외적인 부분에서도 잘 드러

난다. 그는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 침묵하거나 방관하지 않는다. 한국 백혈병 어린이재단 홍보대사인 그는 2001년부터 소아암 치료기금 마련을 위해 매년 [차카게 살자]라는 타이틀의 자선공연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통해 그가 세상을 향해 외쳤던 메시지와 일치하는 행보를 보이며 시대를 살아가는 예술가의 책무에 대해 좋은 본모기를 보이고 있다.

어떠한 과정 속에서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면 사소해 보이는 부분을 생략하게 된다. 사소하게 생략된 부분들이 모이면 점점 커다란 결핍으로 변한다. 과거에 비해 편리해졌다고 해서 삶의 질 또한 높아졌다고 할 수 없다. 다소 돌아가더라도 본질적 가치를 선택해야 할 경우도 있는 것이다. 소중한 가치를 고집하기에 지금의 현실은 녹록치 않다. 하지만 아티스트는 타협하지 않고, 자신만의 색을 찾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하며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미약한 힘이나 마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서 예술의 수준을 높이고, 그것을 향유하는 이들의 수준 또한 높아지며 서로가 상승작용을 일으킬 때, 비로소 대한민국은 진정한 문화 강국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ACKNOWLEDGMENTS

A summary of this paper is organized in 2015 Chungwoon University master's thesis.

REFERENCES

- [1] Jae-Young Jin Tae-Seon Cho Comparative Analysis on Lee Ritenour and Larry Calt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5 No.5 pp2635-2604 2014.
- [2] Yong-Sun Choi The study on interdisciplinary Project Class For Contents Production in Colleg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12, no.4, 1603-1608, 2011.
- [3] Han-Seung Oh The Study on the Trend of Pop-Music Consumers'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7 pp. 4100-4104, 2014
- [4] Seung-Hyun Cho Long term solution for K-POP globalization -Concentrating to the change in education system-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7 pp. 4418-4423, 2015.
- [5] Do-Toung Yoon Tae-Seon Cho Analysis Of the Bass Performance Of Jimmy Blant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5 No.1 pp56-61 2015.
- [6] Hee-Chul Choi Tae-Seon Cho A Anatical Study of Rutger Gunnarsson's Bass Performance Charateristics in ABBA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5 No.7 pp4105-4110 2014.
- [7] Tae-Seon Cho Research on Vocalization for Korean pop Song: Case from the Yong phil Cho's "A Lady out of Window"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0 No.10 2009.
- [8] Hyeong-Chun Kim Tae-Seon Cho A Study on the Similarity between Bix Beiderbecke and early 20th English Literatur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3 No.8 2012.
- [9] Tae-Seon Cho The Study of Vocalization for Korea Pop Music So-Mo-Ri Techniqu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3 No.6 pp2491-2496 2012.
- [10] Seong-Woong Bae1, Jeong-Bae Park A study on How Korean Wave's characteristic effect on sponsorship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1 pp. 70-77, 2015
- [11] Kim-Joong Hoy An Analysis of Music by Guitarist Jim Hall :Based on 'Careful' and 'Waltz New'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4, No. 9 pp. 4204-4211, 2013

- [12] Sung Soo Kim Alternative Music - Ambiguity of Genre & Beat Genera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4, No. 9 pp. 4212-4217, 2013
- [13] Hye-Seung Shin The Study of Sight-Singing and Ear-training Program for Applied Music-Major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1, No. 10 pp. 3673-3679, 2010
- [14] Kil Jung Study on Orchestration in John Williams's Film Score "Star Wars-Main Titl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2, No. 12 pp. 5477-5485, 2011
- [15] Jae-Yung Cho A Study of the Legal Principles in the Judicial Precedents of the Copyright Relating to Advertising Focusing on the Photographic Work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7 pp. 4424-4431, 2015

임 해 권(Lim, Hae Kwon)



- 2004년 7월 : 전인권밴드
- 2001년 10월 : 장나라밴드
- 2008년 10월 : 자라섬페스티벌, 청운대학교대학원
- 관심분야 : 실용음악, 밴드
- E-Mail : gorjsk@naver.com

조 태 선(Cho, Tae Seon)



- 1983년 10월 : 대학가요제금상
- 2002년 3월 : TJB MC
- 2012년 2월 ~ 현재 : 실용음악학회 회장
- 2001년 3월 ~ 현재 : 청운대학교 실용음악과교수
- 관심분야 : 실용음악, 보컬
- E-Mail : entheos@chungwoon.ac.kr